

[ 종합·해설 ]

2008 세제개편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부제를 붙여 2008년 세제개편안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年4천만원 소득자 세금 53만원 줄어

(4인 가족 기준)

◇중·저소득층 민생 안정 및 소비기간 확충 지원=중산·서민층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율이 구간별로 2% 포인트 낮아진다.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기본 공제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는 반면, 가족 수와 무관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낮춰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손질한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교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기존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대학생 공제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급여 3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연간 6~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비과세 대상인 '기타 농가 부업소득'의 기준을 연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올려 잡는다. 비료·농약·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한다.

◇투자촉진 위한 저세율 구조로 전환=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는 25%이지만 과표구간이 2억원으로 상향돼 과표 2억원 이하는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 10%로 낮아진다. 과표 2억원 초과는 최초 적용시기만 1년 늦춰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인하된다.

법인의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에서 2008년과 2009년은 8%로 낮아지고 2010년 이후는 7%로 축소된다.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강만수(앞줄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저소득근로자 등 年 6만~24만원 유가 환급금

교육비 공제 한도 1인당 300만원으로 늘려

소득세를 감면하는 대상업종에 음식점업과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추가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1년 말까지 연장된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R&D 지원 확대=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산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며 준비금 적립한도는 매출액의 3%로 제한된다. 기업이 R&D를 위해 연구시설을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비율을 7%에서 10%로 확대한다.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대학에 지불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지방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늘린다.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적용 지역-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수도권)로 강화된다.

현재 연간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 시)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8%씩 공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

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양도세 증가가 배제되지 않았으로 취학, 장기간양 등으로 인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90%로 예정됐던 올해 중부세 과표적용률이 2007년 수준(80%)에서 동결된다.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유류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는 대신 개별소비세에 통합한다. 유류에 붙는 교통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15%) 역시 본세에 통합하고, 교육세 폐지분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한다.

현재 개별소비세율의 30%(등유·중유·부탄 등은 15%)가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자동차분 교육세(개별소비세율의 30%)도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시 협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 1천~2천cc는 6.5%, 2천cc 초과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세전 적부심사 대상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 예고통지서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세액 등 결정지연에 따른 납세자 부담 해소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신설한다.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압류재산 공매를 제한한다.

관세 과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월별 신고납부에서 분기별 신고납부(유류세 제외)로 변경된다. 장비·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기명납입·서명문서, 계약서 등 위·변조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한다.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의감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연합뉴스

■4인 가족 근로소득세 감소효과 (단위:만원, %, 결정세액 기준)

총급여	2009년				2010년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2천만원	10	6	△4	△43.2	10	5	△5	△51.3
4천만원	169	133	△35	△20.9	169	115	△53	△31.7
6천만원	474	421	△53	△11.2	474	385	△89	△18.8
8천만원	873	793	△81	△9.2	873	738	△135	△15.5
1억원	1,351	1,252	△99	△7.3	1,351	1,179	△172	△12.7

※ 위 세액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고용보험료공제, 표준공제를 단순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개별 납부세액은 위 세액보다 낮음.

■ 세제개편안 Q&A

Q : 지방소재 2주택자 증가 기준은?

A :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정부가 1일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국민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와 부동산세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 사례와 문답형식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소득세율이 내리면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종합소득세율을 내린 1%포인트, 2010년에 1%포인트 내리고 소득공제 체계를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인 가구로 총급여가 2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올해 23만원에서 내년엔 22만원으로 1만원(6.4%) 줄고 2010년 근소세는 18만원으로 5만원(19.8%) 덜 내게 된다.

4인 가구로 총급여가 4천만원인 경우 올해 근소세는 169만원이지만 내년엔 133만원으로 35만원(20.9%) 감소하고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53만원(31.7%) 준다.

-고가(高價)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 양도세 부담은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5억원에 산 주택을 5년 보유후 뒤 10억원에 팔면 현행 세법으로는 양도세로 3

천9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300만원만 내면 된다. 3천600만원(93%)이나 준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적용기준은

▲거주요건 강화 규정(수도권 3년,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2년)은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으로,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거주요건 규정(서울, 과천, 5대 신도시 2년)을 적용받는다.

-지방소재 2주택자에 대한 저가(低價)주택 기준 조정에 따른 1세대 2주택 증가 여부는 어떻게 되나

▲1세대 2주택자 증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수도권은 현행 유효 지가 기준 3억원 이하로 기준을 올리고 증가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면 올해 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공시가격이 내린 경우는 물론이고 오른 경우도 세 부담은 줄어든다. 작년과 올해 공시가격이 20억8천만원으로 동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전용면적 156.857㎡)는 원래대로라면 올해 총보유세가 2천617만2천원이지만 작년과 같은 2천330만4천원만 내면 된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한빛고시학원

개강 9월 1일

공무원합격압도적 1위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약 (062)234-0234

교육행정/농업직/기술직/사회복지/출판직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44년 전통!! 본원출신 전국수석 배출!! [속출열남 평균 96.7점] 합격률1위!!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9월 1일

19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합격을 위한 1차 전검승부 "적대합격반" 수강생 모집

개강 9월 1일 • 모집인원: 신청순 50명 (6기마감후) • 강의인원: 9월 1일~10월 17일

공인중개사 전문 www.landkor.com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2층

첨단점 ☎ 971-0002 (구)비엔나 호텔 옆 광주은행 4층

'09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유력한 개강이 9월 1일입니다. 無等과 함께 합격의 꿈 '꼭' 이루어질 바랍니다.

공무원

강좌직종: 행정부처원찰공정호진지무목측산

하반기 시험

개강 9월 1일(주-아간만 모집) (현재예약수중)

합격 회원 모집

www.mdgosi.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동형문제풀이

9월 1일

9월 1일 ~ 9월 12일 (1단계 워밍업)

9월 16일 ~ 10월 5일 (2단계 이론핵심요약강의)

10월 6일 ~ 10월 18일 (3단계 최종 점검강의)

www.mdgosi.co.kr

222-4560